제 1 부
구정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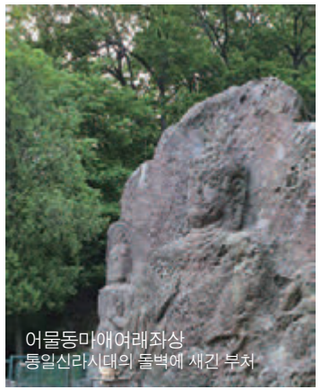
제1장 연혁

제2장 유래

연혁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3호의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광역시 출범과 함께 중구의 진장 · 효문 · 송정 · 양정동과 울주군의 농소읍, 강동면을 합쳐 151.46㎢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북구가 탄생하면서 농소읍이 농소 1 · 2 · 3동으로 분동되고, 강동면이 강동동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52호에 의거 동구 염포동이 동년 3월 1일자로 편입되어 9개동으로 형성되었으나, 1998년 10월 1일 구조례 제124호에 의거 진장동이 효문동으로 통·폐합 되면서 지금의 8개동의 행정체제를 유지하게 되었다.

상안동 지석묘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어물동마애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의 돌벽에 새긴 부처

부족국가시대

울산은 원래 삼한시대에는 진한에 속하였으며, 현재의 다운동을 중심으로 굴아화촌이라는 촌락이 형성되었다.

삼국시대

우리 북구 지역은 신라때의 굴아화현 · 율포현지역으로써, 신라 제35대 경덕왕 16년(서기 757년)에는 굴아화현을 하곡현(일명:하서, 지금의 효문 · 양정동 및 중구 일원)으로, 율포현은 동진현(지금의 농소 · 강동 · 송정 · 염포동 및 동구 일원)으로 지명을 개칭하여 지금의 경주시 모화지방에 있었던 임관군에 속하였다.

고려시대

고려 태조 때 하곡 · 동진 · 우풍 3현을 합쳐 흥려부(일명: 흥례부)로 승격되어 한 고을로써 오늘의 기반을 갖추었으며, 성종 10년(서기 991년) 흥려부를 공화현으로 낮추고, 별호를 학성이라 하였다. 현종 9년(서기 1018년)에는 울주로 개칭되었다.

조선시대

제3대 태종 13년(서기 1413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울주를 울산으로 고쳐 비로소 "울산"이라는 칭호가 등장하게 되었다.
선조 32년(서기 1599년) 임진왜란 당시 울산 의병들이 왜적을 무찌른 공이 매우 컸던 점이 인정되어 울산도호부로 승격되었다.

유포석보
조선 전기에 돌로 쌓은 작은 성(城)

근대

고종 32년(서기 1895년) 도호부를 군으로 개칭하여 군수를 두었다가, 1914년 부 · 군을 정리 · 폐합하는 지방제도 개편시 울산지역은 언양군을 울산군과 병합하고, 19개면으로 개편되었으며, 우리 북구는 농소면(지금의 농소1 · 2 · 3동, 송정동 일원), 강동면(지금의 강동동 일원), 하상면(지금의 효문 · 양정동 및 중구 일원), 동면(지금의 염포동 및 동구 일원)으로 개편되었다.
1931년에는 종래의 편제를 개편하여 울산면을 울산읍으로, 1936년에 동면은 방어진읍으로 승격되었다.

울산의 산업

울산의 오늘

현대

제3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경제개발의 중심지로 선정된 울산은 1962년 2월 1일 각령 제403호로 울산군의 울산읍, 방어진읍, 대현면, 하상면 전 지역과 청량면 두왕리, 범서면 무거 · 다운리 ,농소면 송정 · 화봉리를 울산특정공업지구로 지정 공포하고, 같은 해 6월 1일 법령 제1068호로 위 지역을 울산시로, 나머지 지역은 울산군에서 울주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당시 농소면(지금의 농소 1 · 2 · 3동)과 강동면(지금의 강동동)은 울주군 관할구역에 편입되었다.
1985년 7월 15일부터 울산시가 중 · 남구의 구청이 개청되면서 지금의 효문 · 송정 · 양정 · 염포동은 중구 관할구역에 편입되었고, 1991년 1월 1일 법률 제4274호로 울주군이 울산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95년 1월 1일 법률 제4081호로 울산시 · 군이 통합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같은 해 3월 2일 농소면이 농소읍으로 승격되었다.

유래

농소1동

1962년 6월 1일 울산시 설치로 송정·화봉리가 울산시에 편입되고, 울주군 농소면이 되었다. 1991년 1월 1일 울주군의 명칭 변경에 따라 울산군 농소면,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라 울주군 농소면, 1995년 3월 2일 농소읍으로 승격되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가 신설됨에 따라, 농소읍이 농소1·2·3동으로 개편되었다. 동천강과 매곡천을 경계로 농소1동을 설치하여 창평·호계동 전 지역과 매곡·신천동 일부를 관할하게 되었다. 동사무소는 농소 2동과 함께 구(舊) 농소읍사무소를 사용하게 되었고, 1998년 11월 농소 2동사무소는 신천동으로 이전하였다.

농소2동

농소2동은 북구 신설 이전까지는 농소 1동과 같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가 신설되어 농소읍이 농소1·2·3동으로 개편되면서 동천강과 매곡천을 경계로 북쪽지역을 농소 2동으로 개편하였다. 매곡·신천동의 일부와 중산동 전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다. 동주민센터는 농소 1동과 함께 구(舊) 농소읍사무소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998년 11월 31일 신천동 203-2번지 구 냉천회관으로 이전하였으며, 같은 자리에 청사를 새로지어 2001년 6월 13일 신청사 개소식을 가졌다.

농소3동

1962년 6월 1일 울산시 설치로 송정·화봉리가 울산시에 편입되고, 울주군 농소면이 되었다. 1991년 1월 1일 울주군 명칭변경에 따라 울산군 농소면,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라 울주구 농소면, 1995년 3월 2일 농소읍으로 승격되었다.

강동동

1962년 6월 1일 울산시 설치로 울주군 강동면, 1991년 1월 1일 울주군 명칭변경으로 울산군 강동면, 1995년 1월 1일 시·군 통합에 따라 울주구 강동면이 되었다.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가 설치됨에 따라 강동면을 강동동으로 개편하여, 신명·대안·산하·정자·무룡·신현·구류·당사·어물 등 9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효문동

1972년 10월 1일 울산시 31개 행정동 개편에 따라 진장동과 명촌동을 합하여 진장동을, 효문동과 연암동을 합하여 효문동을 설치하였다. 1976년 4월 20일로 병영출장소가 폐지되었으며,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중구 진장·효문동이 되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에 따라 북구(자치구) 진장·효문동이 되었으나, 1998년 10월 1일 울산광역시북구 조례 제124호(1998년 10월 1일 공포)로 진장동을 효문동으로 통·폐합하여 현재의 효문동(4개 법정동 관할 – 진장·명촌·효문·연암동)이 되었다.

송정동

1962년 6월 1일 울산시에 편입되어 병영출장소 관할(화봉·송정리)이 되었다. 1972년 10월 1일 울산시 31개 행정동 개편에 따라 화봉동과 송정동을 합하여 송정동을 설치하였고, 1976년 4월 20일 병영출장소가 폐지되었다.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중구 송정동이 되었다.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 송정동이 되어 화봉·송정동 2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양정동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중구 양정동, 1997년 7월 15일 법률 제5234호(1996년 12월 31일 공포)에 따른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북구(자치구) 양정동이 되었다. 양정동은 옛날에 버드나무가 많고 만풍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정동주민센터, 효정중학교, 양정초등학교, 양정생활체육공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이 있다.

염포동

1985년 7월 15일 울산시 구제(區制) 실시에 따라 중구 염포동이 되고, 1997년 7월 15일 울산광역시 설치에 따라 동구(자치구) 염포동이 되었다가, 1998년 3월 1일 대통령령 제15652호(1998년 2월 24일 공포)로 북구에 편입되었다. 염포동은 옛날부터 염전이 많아 소금이 나는 갯가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동구 방어진과 중·남구로 이어지는 염포로와 아산로가 동서로 관통하며, 염포초등학교와 현대모비스·현대하이스코 등의 기업체가 있다.